

천지공사에 나타난 러일전쟁과 인류평화

朴龍哲*

目次

- I. 논의의 초점
- II. 20세기 이전의 세계 추세
- III. 러일전쟁 이면에 담겨 있는 인류평화를 위한 대순사상
- IV. 21세기의 인류평화

I. 논의의 초점

21세기를 준비하는 인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한 불안요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많은 지식인이 염려하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점에 대하여 밝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대순사상에서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술대회 주제 제목에 21세기라는 분명한 기간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세태의 추이에서 어떤 시간 영역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야만 '21세기 인류평화와 대순사상'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순사상에서 인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극의 우주의 법리를 가진 선천시대에서 후천을 열기 위하여 우주의 법리를 상생 시대로 전환한 교체 분기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극시대와 상생시대의 교체 분기점을 대순사상에서 분명히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구천상제의 말씀을 통하여 세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831년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이전에 서양에서 일어난 물질문명이 도의 근원을 끊어지게 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을 하므로 구천상제께서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 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불에 30년을 지내셨다. 1860년에 최제우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1864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1871년에 강세하였다. 강세 후부터 구천상제께서 수많은 기행 이적을 보이시다가 1897년에 천하를 광구 할 뜻을 두고 천하를 두루 주유하신 후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하셨다. 1901년 봄에 대원사에서 49일 동안의 불음 불식 공부를 통하여 천지신명을 심판하고 오룡허풍의 천지대도를 열어신후 착란에 빠진 명부전을 뜯어고치고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는 묵은 하늘을 사람 살리는 새 하늘을 만드는 공사를 보셨다. 그리고 1903년 여름에 백척간두에 놓인 동양 형세를 붙잡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는 공사를 보셨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이 구천상제께서 구천을 내려오신 1831년 이전부터 천지신명을 심판하기 이전인 1901년 봄까지는 신명과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천하를 관조하고 준비한 기간이라는 것을 구천상제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1901년 대원사 공부를 기점으로 삼계 대권을 가지고 신명계의 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우주 법리를 바꾸는 일련의 공사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1903년 여름부터 인류의 역사에 구천상제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공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인류평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인류평화와 대순사상'의 제목에서 21세기를 직선적 시간 개념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의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순사상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나타내는 후천 상생시대의 기간을 오만 년이라는 정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인류 평화를 이룩하여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 세기만을 조명한다는 것은 대순사상의 큰 뜻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인류평화를 위하여 구천상제께서 언제부터 실재로 우주의 법리와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였는지의 그 시작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21세기의 인류평화를 대순사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인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치를 대순사상에서 수없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단지 논자는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통하여 대순사상이 인류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II. 20세기 이전의 세계 추세

구천상제께서 17세기부터 서양 유럽에서 일어난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 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말씀에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양 유럽의 시대 조류가 동양에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이전까지 철학과 과학을 수족으로 거느리며 서양 유럽의 맹주로 활약하던 그리스도교는 갈릴레이 갈릴레오(1564-1642)가 1610년 『성계의 보고』라는 정기 잡지에서 지동설을 실증하므로 그리스도교의 절대적인 진리인 천동설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찰스 다윈(1809-1882)이 발표한 진화론은 그리스도교의 절대 진리인 창조론에 또 한번의 정면 도전이 되었다. 이러한 이성적 진리의 발전으로 인하여 16세기까지 서양 유럽에서는 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식인들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17세기부터는 신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고, 나아가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생기는 사회적 현상을 낳게 하였다. 즉, 과학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하여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는 그 융합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따라서 19세기는 그리스도교 본래의 종교 이상인 ‘사랑’을 인류평화에 적용시키기에는 그 종교력이 너무나 유명무실한 시대였고, 반면에 새로운 사조

가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커져 가게 되는 현상을 낳은 시대였다. 즉,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리스도교는 과학문명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므로 인하여 인류평화를 위한 기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19세기 때 유럽에서 흐르는 여러 사조에서 한줄기를 보면 1859년 다윈이 자연도태설과 진화론을 확립한 『종의 기원』을 발표함으로써 유럽의 정치 사상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영국의 스펜스(1820-1903)는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받아들여, 진화를 생물뿐만 아니라 세계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다윈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생존경쟁 결과 환경에 잘 적응한 인종은 살아 남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종은 도태된다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용어를 만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스펜스 학설은 1870년 이후 유럽 국가의 정치에 적용되어 위정자들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즉, 유럽 국가의 위정자들은 힘없는 나라와 민족을 억압하고 도태시킨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가책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19세기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부국강병과 산업자본가의 이윤 때문에 대량생산을 위하여 원료를 독점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수입처와 대량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필요하여 발달된 교통수단과 근대식 무기를 가지고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아세아의 대륙을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제국주의시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세기말은 사회다윈주의로 정신무장을 한 유럽의 국가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국의 이득을 위하여 동양으로 침범하니 과학문명의 발전이 느리고 정치적 혼란기에 있는 청나라와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었다. 즉, 19세기는 타국의 식민자가 되거나, 그게 싫을 경우 산업을 일으켜서 군사력을 길러 제국주의 국가 속에 편입되거나,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대였지 중립의 입장은 취할 수가 없는 시대였다.

이와 같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추세를 구천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셨다.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다.” …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교운1/9)

따라서 20세기초에 무한한 권능을 가진 누군가가 국제 정세를 중재하지 않으면 제2차 아편전쟁 때 영·불 연합군에게 북경을 점령(1860년)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참패한 청나라와 1894년에 일어난 자국의 민란도 수습치 못하여 청나라에 원병을 청한 조선은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양 세력에게 완전히 넘어 갈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뿌렸이 드러낸 러시아가 조선과 청나라에 군사 전진 기지를 완전히 갖춘다면 서양의 군사력에 비해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일본은 당연히 러시아의 야욕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이 동양을 완전히 식민지로 장악하게 되면 이질적인 양대 문명이 충돌하여 이민족, 타종교, 타문화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게 되니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원한이 생성되어 천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세상을 진멸지경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게 하니, 이것을 예측한 원시 신성 불 보살이 회집하여 구천에 하소연하게 되고, 그 하소연을 들은 구천상제께서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인세에 강세 하게 된 것이다.

Ⅲ. 러일전쟁 이면에 담겨 있는 인류평화를 위한 대순사상

20세기 이전의 세계 추세와 20세기에 일어날 세계 추세를 예측한 바에 의하면 구천상제께서 인류평화를 위하여 급선무로 해야 될 천지공사는 예로부터 쌓인 원을 푸는 해원공사를 하시기 전에 동양이 서양에 넘어감으로 생겨나는 인류 최대의 원한을 막고, 동서양의 충돌에서 생기는 원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천상제께서는 동서양의 세력 균형을 맞추어 서로를 침범치 못하게 한 후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예로부터 내려온 원을 풀 수 있는 공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1903(계묘)

년 여름부터 동서양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구천상제께서 다음과 같이 삼계대권을 주재하셔서 평화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23)

또 상제께서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붙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셨도다. (예시 24)

여기서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상극의 극단적인 행위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평화를 역행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행위로 여겨지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도수에서 비롯된 전쟁은 인류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 있다는 것에 이 논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른 인류의 첫 전쟁은 러일전쟁이다. 그러므로 러일전쟁 이전의 동양의 정세를 살펴보고 러일전쟁에서 인류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한다.

러일전쟁의 도화선은 청일전쟁에 있고, 청일전쟁의 도화선은 동학농민운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천상제께서 “최제우는 작란(作亂)하는 사람이고, 전명숙은 천하의 난을 동(動)하게 한 사람이다”고 하셨는데 최제우의 작란과 전명숙의 천하의 난을 동하게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제우는 1860년 4월에 상제로부터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 받아 동학을 폈지만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학은 1863년에 정부로부터 사교(邪教)로 취급받고 최제우는 1864년 3월에 대구에서 처형당하였다. 최제우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일은 동학교도의 한이 되어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조신원운동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사교로 규정한 동학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정부는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즉, 정부의 행정력이 너무나 약하여 무

력으로 동학교도를 진압할 능력이 없는 정부로서는 인정하기에도 어려웠고 또한 강하게 반발하기에도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 운동에 유화책을 쓰고 있을 때 각 지방행정관들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전라도 전주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매우 심하였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전명숙이 마침내 1894년 3월에 농민과 동학교도를 모아서 국가정치와 사회제도의 전면개혁과 보국안민이란 명분을 내세워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운동에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도 없었고 또한 협상할 명분도 없었다. 따라서 이씨 왕조를 지키기 위하여 조선 정부는 자국민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자 그 당시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식민지의 확보가 자국의 부강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이란 맛있는 생선을 청나라에 고스란히 넘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1885년 3월에 청나라와 체결한 천진조약을 빙자하여 바로 군인을 조선에 파견하게 된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의 뜻한 바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청과 일본이 조선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최제우의 죽음은 동학교도들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이 명분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 농민운동은 조선에 청과 일본이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의 맛있는 생선을 놓고 다투는 청일전쟁을 낳게 하였다. 즉, 최제우의 죽음과 전명숙의 운동은 천하의 난을 동하게 하는 작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이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부터 1895년 3월까지 한 전쟁인데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이 승리로 일본은 4월 17일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에서 청나라로부터 ①조선에서의 청국의 종주권 파기, ②랴오퉁 반도와 타이완, 평후섬의 할양, ③배상금 2억 냥 지불, ④열국과 동일 특권을 인정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을 얻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서구의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간섭에 일본은 대항을 할 수 없어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1895년 4월에 랴오퉁 반도를 반환하였다. 이러한 청일전쟁 후 크리미

아 전쟁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실패한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하여 동양으로 그 야욕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중국을 강간하여 만주지역을 러시아 마음대로 활용하였지만 청은 여기에 어떤 것도 대항할 수가 없었다.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봉천, 영구에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제 1단계에서 철수한 병력을 한·만 국경선인 압록강 방면에 집결시키고 조선 영토인 용암포에 병영을 세운 후 조선 정부에 용암포의 조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를 여순에 집결시켜 서해상에서 공공연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1899년에는 조선 남부의 마산포를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석탄 공급기지로 조차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러일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대해서 양측 정부의 입장을 보고자한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은 몸에 나는 상처 정도로 러시아 위정자들에게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의 패전은 망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양국의 위정자와 세계가 보는 견해였다. 그 당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상비 병력은 2백만이었으며, 일본의 그것은 20만밖에 되지 않았다. 또 러시아의 세입은 20억 엔이었고, 일본의 그것은 2억 5천만 엔밖에 되지 않았다.(4권 145쪽)¹⁾

일본은 러일전쟁 때 전비 총액 17억1천6백만 엔 가운데 약 8억 엔은 영국, 미국에서 모집한 외채로 충당하였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도저히 전쟁이 불가능했었다.(4권 역주)

이와 같이 군사력과 경제력 차이가 매우 큰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일본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외국 어느 나라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러·일전에서 일본이 승리하려면 일본은 직접 전투인 육전과 해전에서 승리하여야하고, 또한 간접 전투인 대첩보작전과 외교에서 승리하여야만 하는 즉, 4박자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패하면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 당시의 분석이었다. 즉, 일본이

1) 시바 료타로, 이송희 역, 『언덕 위의 구름 1 ~ 10권』, 명문각, 1991
이 뒤로 『언덕 위의 구름』에 대한 인용은 권만 표시함.

육전에서 승리하고 해전에서 패하면 보급로가 끊어져 육군은 고사할 것이고, 육전에서 패하고 해전에서 승리하면 명분만 있고 실속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 되고, 또 전비와 보충병이 없어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일본은 단기전의 승리로써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휴전을 체결해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러시아 내부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대첩보작전과 이러한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에게 휴전을 강요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보면 승리가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1903년 8월 12일에 러시아에 대해 개전 할 마음을 먹으면서도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마지막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 내용은 “청나라, 대한제국 양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을 존중할 것. 러시아는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세한 이익을 승인할 것. 그 대신에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에서의 철도 경영의 특수 이익을 승인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4권 21쪽) 그렇지만 러시아는 1903년 10월 6일 일본안을 묵살하고는 “한국의 북위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하고 싶다”고 나왔다.(4권 23쪽)

러시아 측의 안에 전쟁을 피하고 싶은 일본은 한발 양보하여 양보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대략 러시아는 만주의 권익을 갖고 일본은 한국의 권익을 가지면서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여순에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켰다. 즉, 군사력의 보장을 위하여 시간을 벌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1903년 12월 11일 회답은 한국에 대해서는 절반을 러시아에 내놓아라 하는 요구이었다.(4권 26쪽)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는 일본을 의식적으로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었다. 일본을 궁지로 몰린 쥐로 만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고양이를 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4권 27쪽)

그 당시 러시아 정부의 극동 방침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짐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상 러·일간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러시아의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였고, 온건한 인물로 여겨졌던 내무대신 프레베 조차도 “오늘날 러시아 제국이 번성을 과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군인의 힘에 의한 것이지 외교관 덕택은 아니다. 극동 문제 같은 것은 외교관의 펜 끝보다는 군인의 총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고 말하였다.(4권 24쪽)

이러한 러시아 위정자들의 의식에서 나온 외교를 유럽에서 살펴보더라도 한 강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이렇게까지 처참한 가학적 외교를 한 예는 없었다. 백인국 사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외교 전략이, 상대가 이교도, 그것도 열등 인종으로 간주되었던 황색민족 국가가 되면 태연히 이러한 외교를 하여도 된다는 식에 일본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다.(4권 27쪽)

즉, 적자생존론적 사회다윈주의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동양 핍박을 구천상제께서는 “조선을 서양에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 날 수가 없다”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러·일 쌍방은 대영제국을 모델로 삼아 근대적인 산업국가가 되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만주를 갖고 싶어했으며, 식민지가 없는 일본은 한국이라는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이다. 만일 이것을 버린다면 한국은 커녕 일본 그 자체도 러시아에 병합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었다. 그 당시는 국가 자립의 본질이란 그런 것이었다. 즉,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하지 않고 극동으로 진출하는 러시아에 양보한다고 하여도 자국의 경제를 살릴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자멸할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조선을 삼키고 일본을 가만히 두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그 당시 국제 정세였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위정자들이 개전 당시를 얼마나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시바 료타로씨가 러일전쟁 후 합리적이지 못하고 신비주의에 빠져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철저한 실례와 사례를 통하여 매우 객관적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집필한 러일전쟁의 활사(活寫) 『언덕 위의 구름』을 통하여 보고자 한다.

군비를 담당한 재계의 중진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1903년 봄에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할 만한 돈이 없어요. 싸우는 도중에 국가는 파산할 것이고 적탄에 의해 깨부숴질 겁니다”고 반전론을 주장하였다.(4권

13쪽)

1904년 2월 최후의 어전회의를 끝내고 나온 추밀원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는 울어서 눈이 툭툭 부어 있었다고 하니, 일본의 승리를 거의 믿을 수 없었던 그로서는 이 결정에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던 것이리라. 이토가 가네코에게 한 말은 “미국으로 가 주시오.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동정을 환기시켜 적당한 선에서 미국의 회의적인 중개에 의해 정전 강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아 해 주기 바라오.” 라는 것이었다. 가네코 겐타로는 자신이 없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다면 이기는 것은 러시아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미국의 호의적인 중개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공작하러 미국으로 가다오 하는 말을 한다 한들 러시아와 일본의 힘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야 미국의 호의적인 중개 따위가 기술적으로도 성립 될 수 없다. 가네코 겐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토가 떠맡겨온 이 자기 중심적인 임무를 받아들여야 할는지 어떨는지 몰라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었다. 이토는 가네코의 마음속을 헤아렸다. “자네는 이 임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걱정이 된 나머지 대답을 꺼리고 있군, 그렇지?” 가네코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토가 말하길 “그렇다면 말해 두겠는데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돈을 준비하는 재무성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맡아 할 육군이나 해군도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는 아무런 확실한 전망도 갖고 있지 않네.”하고 이토의 정직한 면을 보였다. “나 자신이 이런 결의로 내닫기 전에 육·해군 당국자에게 물어 보았지만 누구 하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태를 방관하면 러시아의 침략은 만주, 한국뿐만 아니라 결국은 일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었다. 일이 여기에 이르면 국가 존망을 걸고 싸우는 외에 방법이 없소 이미 성공이나 실패냐를 논하고 있을 여유 따위는 없소” 러·일 협조론을 밀고 나왔던 이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4권 31-33쪽)

일본은 전쟁이 벌어지면 군함의 연료인 석탄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그것도 양질의 무연탄이 아니면 안 되는데 영국의 석탄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영탄(英炭) 90만 톤을 돈이 없어서 일년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외상으로 구입하였다.(4권 29쪽)

러일전쟁 개전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참담한 입장에서 전쟁을 도모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즉,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된 일본은 거만한 고양이로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에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전혀 모르는 일본은 너무나 엄청난 천운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 일본은 육전에서도 수많은 천운에 의하여 전쟁을 승리하였지만 봉천 회전 후에는 손실된 병력의 보충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싸울 무기를 보충할 전비도 고갈이 났다. 이때 러시아 내부에서는 혁명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쓰씨마섬에서의 해전이 일본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을 때 러시아와 세계는 경악하였고, 미국의 루우스벨트는 러시아를 몰아붙여 휴전을 체결케 하니,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런 완벽한 4박자의 조화 즉, 수많은 천운-- 그 당시 전쟁에 수행했던 장교의 증언과 시바 료타로의 분석에 의함-- 가운데 몇 가지를 찾아 적고자 한다.

봉천 회전은 아무리 보아도 러시아군이 질 만한 전투가 아니었다. 병력과 화력 모두 일본군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병사들의 질도 유럽 쪽 러시아에서 보충된 풋풋한 사병들이 다수를 차지해서 일본군과 같이 예비노병으로 군대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작전에서 졌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작전에서 참패했던 것이다. 러시아군의 치욕은 그 사단장 이하의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단장 이하의 용전 감투는 일본군의 그것에 비해 거의 손색이 없었다. 그들은 명령에 순종했으며 지키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사수했고 진격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포탄이 쏟아져도 그것을 무릅쓰고 나아갔다. 질서가 느긋해진 군대에 있을 법한 항명 현상은 거의 없었으며 제멋대로의 상황 판단으로 후퇴하는 부대도 없었다. 후퇴 또한 명령으로 후퇴했다. 그 진퇴가 정연하게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세계 제일의 육군 국가로 일컬어짐에 부족함이 없었다. 러시아군의 패인은 오로지 한 인간에 기인하고 있었다. 쿠로파트킨의 개성과 능력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을 통틀어서 드물다고 해도 좋다. 국가이건 대군단이건 또 다른 집단이건 그것들이 크게 발을 헛디뎌서 휘청거리는 그 원인과 근원은 모두 복잡해서 한 두 사람의 고급 책임자의 능력이나 실책에 귀납시킬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무수한 원인의 덧셈이거나 곱셈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나 봉천 회전에 한해서만은 오로지 쿠로파트킨 한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주 광야에서 벌어진 세계 전쟁사상 최대 규모인 이 회전은 고급의 진귀한 예라고 해도 좋다.(9권 31-32쪽)

봉천 회전은 개개의 정면에서 과연 일본군이 우세하였는가 의문스러우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쿠로파트킨의 쓸데없는 병력 이동에 의해 전멸 위기에서 구원받은 일본군 공격 부대가 무수히 존재했다. “기적의 3월 7일(1905년)”이라는 말이 중앙을 담당했던 노즈 군 사이에서 전쟁 후 자주 화제에 올랐었다. “왜 3월 7일에 러시아군이 사라졌던 것일까?”라는 의문이었다. 특히 그 만보산으로 대표되는 러시아군의 강대하고 중후한 방어선(반영구 진지)에 덤벼들었던 노즈 군의

경우는 그러했다.(9권 36쪽)

3월 5일 하루동안만 제10사단의 피해는 2천3백62명이라는 방대한 숫자여서 사단으로서의 힘이 감퇴되었으며, 살아 있는 사병들도 며칠동안의 불면과 피로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만일 러시아군이 다시 한번 대역습을 시도했다면 제10사단은 전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면도 또한 쿠로파트킨에 의해 구원받았다. 7일 밤이 되자 러시아군은 스스로 보루를 버리고 후퇴하고 말았다. 기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었다. 만보산 보루선의 러시아군은 ‘근세의 학리를 응용한 반영구적 축성’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일본군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충분한 활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후퇴했던 것이다.(9권 38쪽)

작전은 일본측의 압도적인 주도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쿠로파트킨은 오로지 수동적으로만 행동하면서 줄줄이 전개되는 일본측 작전의 뜻대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마치 일본측이 그렇게 하기 위해 고용한 장군인 듯했다.(9권 44쪽)

그야말로 거인과 어린이가 씨름을 하고 있는 듯한 것이었다. 다만 어린이 쪽에서는 자기의 작은 왼팔과 오른팔(왼팔은 노기군, 오른팔은 압록강군)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갖가지 씨름술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점이 러시아군과 다른 점이었다. 봉천회전에 관한 한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이 고도의 두뇌 작업은 일본측에서만 존재했고 러시아측에는 전무했다고도 할 수 있었다. 쿠로파트킨의 어리석음은 세계전사상 유례를 찾는 것이 곤란 할 정도였다.(9권 65쪽)

이 봉천 회전에서 일본군의 사상자 수는 방대해서 5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러시아군의 피해는 그 후퇴시에 가장 심했다. 포로 3만 명을 포함해서 16,7만 명에 이르렀으니 일본군의 3배가 넘었다.(9권 84쪽)

이와 같이 엄청난 천운에 의한 육전의 승리가 있었지만 1905년 3월 22일 다례항을 출발하면서 고다마의 뇌리를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고민은 ‘3개월이 지나면 만주의 러시아군은 강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고다마는 그 강대함이 일본군 병력의 3배라고 보고 있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아무리 교묘한 작전을 세우고 아무리 일본 병사들이 용맹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웠다. 예상할 수 있는 이 3배의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다시 6개 사단을 신설하고 전비 10억 엔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국력으로 보아 꿈과 같았다.(9

권 103쪽)

따라서 육군의 작전을 맡아하는 고다마 겐타로는 도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투의 심각함을 알리고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강화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고다마는 귀국하였다. 이러한 작전 때문에 아카시 모토지로 는 러시아의 내부 혼란을 위하여 대첩보 작전을 유럽에서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 작전은 순풍을 탄 배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 러시아의 혁명가인 레닌과 연결하여 내부 혼란을 도모하였지만 그 시기는 전쟁 후가 되었다.

아카시가 스위스에서 사들인 무기 탄약은 소총 1만 6천정, 소총탄 1백 20만 발이라는 방대한 것이었다. 이것만으로 예비 1개 사단은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8권 75쪽)

그것들이 러시아 혁명 분자들 손에 건네진 것은 러일 전쟁 강화 후의 일이었으므로 러시아 혁명사에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러일 전쟁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8권 76쪽)

그렇지만 내부 혼란의 도화선은 1905년 1월 아카시와 전혀 상관없는 가폰 신부의 청원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패전은 혼란의 바람을 거세게 하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여기서 러시아 내부의 혼란 원인이 되는 극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1905년 월력 1월 6일(19일)은 페테르스부르크를 흐르는 네바 강의 축제날이었다. 이 축제는 황제 스스로가 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니콜라이 2세는 이 날 겨울 궁을 나와서 네바 강 왼쪽 기슭을 바라보며 현란하고 엄숙함을 골자로 하는 그리스정교의 의례 속의 사람이 되었다. 네바 강 오른쪽 기슭에 낡은 요새가 있었다. 1703년에 표트르 대제가 축성한 것으로서 페테르스부르크 요새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 요새에 있는 구식 포도 이 의례에 참가했다. 축포를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포성이 은은하게 울리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그치려고 하는 순간 실탄이 날아와서 겨울 궁 부근에 떨어져 창 4개를 파괴했다. 황제는 그 장소보다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당연히 혁명 분자가 한 짓이라고 궁정 측도 생각했고 시민들도 생각했다. 그러나 진상은 단순한 실수였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이상 사태 조류 시류 속에서는 때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대한 의미와 역할을 가졌다. 이 날부터 사흘 후에, 그다지 혁명적 성격을 띠지 않은 종교 의례적인 청원 데

모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위험하다고 보고는 보병 부대와 코샤크 기병대를 보내서 일제 사격을 가하고 칼로 살육을 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유명한 '피의 일요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네바 강 축제 때에 일어났던 오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신경도 이토록 병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의 일요일'에서는 1천명이 부상하고 2백 명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이 날 겨울궁 앞 광장에 모였던 대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혁명 의식을 지닌 대중은 아니었다. 그들은 붉은 깃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붉은 깃발을 증오하고 있던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가장 경건한 종교적 대중이었으며 일요일이면 꼭 가족끼리 교회에 갔다. 이날 이 대중과 그 가족들은 평소 신뢰하고 있던 가폰이라는 신부에게 이끌려서 "황제에게 청원을 하러 가자."고 하게 되어 교회에 가는 대신 겨울궁 앞 광장에 20만 명이 모였을 뿐이었다. (8권 63-64쪽)

이 날 사건은 혁명 세력 측에서 이만큼 선전 효과가 있는 전형적인 사건은 만들어 내려 해도 만들 수 없을 정도였다. 즉, 지식 계급이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던 '황제 악마설'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레닌은 "몇 년 동안의 혁명적 교육에 값할 만한 것을 단 하루 동안에 해냈다."고 한다.(8권 74쪽)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대순사상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계묘년에 중도 김형렬과 그의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 (예시 25)

러시아의 내부 정국의 혼란과 봉천 회전의 대승이 있었지만 일본은 봉천 회전후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미국의 루스벨트 - 나중에 일본의 변호사라고 일컬어짐-는 일본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중재를 제안하였지만 러시아는 봉천까지의 육지전 실패를 외교면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일 양국의 운명은 앞으로 다가오는 해전에 달리게 되었다.

루스벨트는 국무장관 태프트에게도 "조정 가능성은 멀어졌다. 일본에게 불리해질지도 모르지만 해전 결과를 기다렸다가 중재에 나서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라고 말했다.(9권 143쪽)

그러면 러시아에게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케 한 해전 - 구천상제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서양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의 형세를 붙잡는 구체적인 실례 -를 여러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바 료타로씨는 ‘쓰시마 섬 해전을 인류가 이루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기록적인 승리를 일본측에 안겨 주고 끝났었다’(10권 246쪽)고 했었고, 또한 ‘해전 수역에서 적의 사령관을 붙잡는다는 것은 선례가 없었던 일이었으며 어떤 공상 소설가라도 이런 설정은 너무 현실감이 없다고 억제할는지도 모를 사실이다’(10권 198쪽)고 그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도고의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아키야마 사네유키 중령은 “하늘의 도우심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였고(10권 162-163쪽), 전쟁 후 제2함대 사령관 가미무라 히코노조의 선임 참모인 사토 데쓰타로 중령은 해군대학교 교관으로 있을 무렵 나시아 도키오키라는 해군 소장이 놀러 왔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지?”하고 물었다. 나시아는 자기 자신이 실전에 참가했으면서도 그것이 신기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식이었다. 확실히 지나치게 기묘했다.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승리요인이라는 것은 무수히 추출해서 조직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인류가 전쟁이라는 것을 체험한 이래로 이 전투만큼 완벽한 승리를 완벽한 형태로 이룬 경우는 없었으며 그 후에도 없었다. “육 할쫘은 운이었겠지요” 하고 사토는 말했다. 나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 할은 무엇일까 하고 물었다.

사토는 “그것도 운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나시아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육 할도 운, 사 할도 운이라면 전부 다 운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토는 앞의 육 할은 진짜 운이고, 뒤의 사 할은 인간의 힘으로 개척한 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10권 162-163쪽)

그리고 세계의 신문은 이 해전이 믿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동맹국인 영국의 신문조차 취했다. 발트 함대는 전멸했고 도고 함대는 어뢰정 3척이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것을 그대로 냉정하게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단 한 신문에 불과했고 다른 신문들은 오보가 아닐까 하는 태도를 취했다. “일본 해군은 자기네의 피해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쓴 신문조차 있었다. “장

갑 함정이 단순한 포전에 의해 그렇게 손쉽게 침몰될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한 신문도 있었다. 오히려 그것이 전문가의 상식이었으며 만일 일본측 발표가 진실이라면 그들은 잠함정을 사용했음이 분명하다고도 일부에서 말해졌다.(10권 237-239쪽)

그리고 영국의 해군 연구가 윌슨은 구천상제께서 하신 천지공사 그대로 “이 해전이 세계사를 바꾸었다”고 지적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갑 함정이 연출하는 근대전 전술에 대해 책도 썼던 H. W. 윌슨이라는 영국 해군 연구가는 러일 쌍방 발표에 의해 사정이 명쾌해졌을 때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가. 나는 육상 전에서나 해전에서나 역사상 이처럼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썼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해전은 백인 우세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점에서 역사상 하나의 신기원을 그었다고 해야 한다. 유럽 아시아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던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 장래에는 백색 인종이나 황색 인종이나 동일한 기반 위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0권 237-239쪽)

그러면 사토가 말하는 육 할의 진짜 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적어 보고자 한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그 이유는 어떤 전쟁사 연구에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1905년 5월 7일 로제스트벤스키는 자기 함대의 모든 함정의 굴뚝을 노란색으로 칠하게 하였다. 이 노란색 굴뚝만큼 도고 함대의 사격에 플러스가 된 것도 없어서 일본측으로서는 그 덕택에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데 고생을 전혀 하지 않았다.(9권 176쪽)

5월 23일 제2전함 전대 사령관인 페리케르잠 소장이 병사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곧 “그 사망 소식은 비밀로 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 제2전함 전대의 임시 사령관조차 선택하지 않았다. 제2전함 전대는 시체 사령관을 반등고 전쟁터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제2전함 전대는 사령관을 잃은 채로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지휘자가 없는 군대라는 것을 생각해 낸 사상 유일한 인물이 바로 로제스트벤스키였다. ... 게다가 로제스트벤스키는 페리케르잠 소장의 죽음을 -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 제3전함 전대의 네보가토프 소장에게조차 통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보가토프 소장이 페리케르잠 소장의 죽음을 안 것은 해전이 끝난 다음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였다.(9권 192-194쪽)

전투를 앞 둔 로제스트벤스키는 함정의 운동성을 좋게 해 두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도망용으로 가득 실어 둔 석탄(기함의 사령관 실에까지 석탄을 쌓아 두고 있었다)을 적당히 줄여서 경쾌한 운동성을 회복했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어떤 함정이나 다 석탄을 지나치게 많이 실어서 홀수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다.(9권 228쪽)

로제스트벤스키의 조치 중에서 기괴한 한 가지가 있었다. “전투 준비.”라는 신호를 내건 이상, 보통의 함대 사령관이라면 가연성인 목재 기구들을 바다 속으로 내던져 버리도록 했을 것이다. 막상 전투가 벌어질 경우 함정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이런 류의 가연 물체 - 의자나 테이블 - 가 있으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화재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과거의 전쟁 경험이 증명하고 있는 바였으며 전투 전에 그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해군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로제스트벤스키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 않았다.(9권 251쪽)

5월 27일 오전 5시 5분 로제스트벤스키가 취한 조치 중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이즈미 호로 하여금 무전을 계속 허용했다는 점이었다. 이 함대의 가장 순양함 우탈 호에는 7백 마일이나 간다는 마르코니 회사 제품인 세계 제1의 무선 전신기가 한 대 부착되어 있었다. 이 강력한 전파를 사용한다면 이즈미 호의 무전을 방해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사실 우탈 호는 참다 못해서 제독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독은 해상 신호기를 통해서 “일본의 무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이 함대의 참모조차 이 조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극히 기괴하게 생각했다고 먼 훗날까지 비평했지만, 일본측의 전함 시키시마 호의 함장이었던 데라카키 대령은 전쟁 후 “이것도 하늘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측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9권 270쪽)

실제로 개전 시간이 되었을 때는 청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안개가 얽어져 있었지만, 가토로서는 사네 유키가 ‘청명’이라고 대본영으로 타전했다는 것이 다소 불쾌했다. 조금도 청명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네 유키는 기도하는 신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안개는 틀림없이 깰 것이다. 천운은 우리 함대에 미소를 던질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이 날 연합 함대에 행운이었던 하늘의 연속적인 도움 때문에 신령을 믿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야마모토 곤 베에가 “아키야마는 너무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 한다. 후세에 신비적인 힘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자가 나온다면 일본의 운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정도였다.(10권 43쪽)

도고가 운동을 해감에 따라 풍향이 달라졌다. 도고는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향해 섰다. 도고로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일개 수병에 불과했던 니시다로서는 기적적인 현상처럼 느껴졌던 듯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나오더니 적측으로 강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서면 포의 명중률이 좋아지지요.”하고 니시다 용은 자택에서 말했다.(10권 88쪽)

주결전 다음날인 28일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사건만은 신과 악마가 합작한다 하더라도 일어나기 어려운 운명적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동해라고 하는 광대한 바다 위에서 러시아 측의 주장인 로제스트벤스키와 그 참모들이 전부 포로가 된 것이었다.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10권 184쪽)

이와 같이 해전이 승리했을 때 루스벨트는 러시아 해군 전멸을 마치 자국의 승리라도 되는 것처럼 기뻐했고, 그 승리로부터 9일 후에는 주 러시아 대사인 마이어에게 훈령을 내려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직접 만나서 강화 권고를 하라고 명령했다.(10권 247쪽)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였던 것이다. 루스벨트의 중재를 러시아의 켈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회고록에 적고 있다.

“루스벨트의 조정은 기묘하기 짝이 없었다. 대통령은 철두철미 일본 편을 들었다. 그는 조정 기간 중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적이었다.”(『언덕 위에 구름』의 서문)

IV. 21세기의 인류평화

러일 전쟁은 어느 하나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일본의 작전이 제갈공명과 같이 적을 가지고 노는 정도로 고도의 전술을 구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를 보면 전군의 총작전 참모인 고다마 겐타로는 휘순을 함락시키는데 하루면 될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일본은 휘순 함락을 위하여 191일이란 기간과 사상자 육 만명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이와 같이 일본은 억지 작전을 세웠지만 일본의 승리는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분명히 느낄 정도로 하늘의 도움과 마치 일본 간첩이 적의 장수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러시아 사령관의 움직임 때문이었다(여기에 대해

서 대순사상적 해석이 가능한 것은 신명이 러시아 사령관의 생각을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대순사상적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러일전쟁은 오직 구천상제의 권능에 의해서 승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작전가와 병사들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모르기 때문에 ‘천운(天運)’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구천상제께서 동양이 서양에 넘어가서 생기는 원한--인류를 진멸지경으로 몰고 갈 원--의 생성을 막고, 동서양의 세력 균형을 맞추는 공사를 보았다. 구천상제께서 1901년과 1902년에 하신 천지공사를 우리는 그 실제성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러일 전쟁은 분명히 천지공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학설이라도 그 학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구천상제께서 말씀하신 종교적 이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21세기의 인류평화를 대순사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보니 시바 료타료씨가 쓴 러일전쟁의 활사라는 자료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구천상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면 구천상제께서 우리들에게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세기 한 세기는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 가는 세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는 후천 선경으로 가기 전에 인류에게 남아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해소하는 시대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해소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과 자연의 구조가 개혁을 통하여 완전히 상생으로 변할 때 인류는 자연에게 가한 해악을 되돌려 받아야 하므로 그 어려움이 걱정되지만 분명한 것은 21세기와 더 나아간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어려움의 고비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찬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이는 구천상제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2

윤명식.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한국이데아. 1993

김희영. 이야기 중국사 제 3권. 청아출판사. 1995

시바 료타로 저, 이송희 역, 『언덕 위의 구름 4 ~ 10권』, 명문각, 1991

오진곤. 과학사총설. 전파과학사. 1996

이현희 외 15명.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92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98